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1

하늘이 준비하신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1

하늘이 준비하신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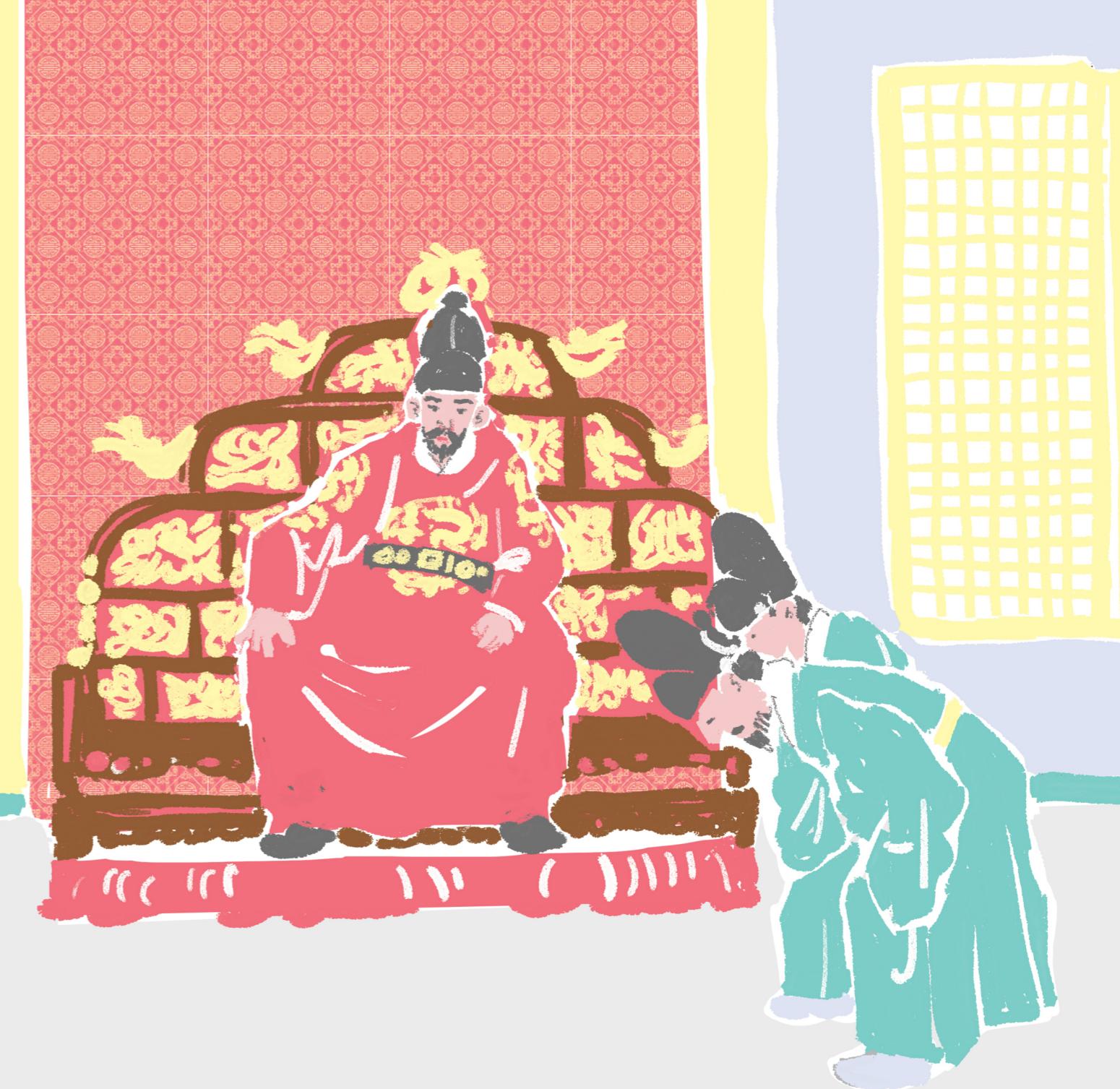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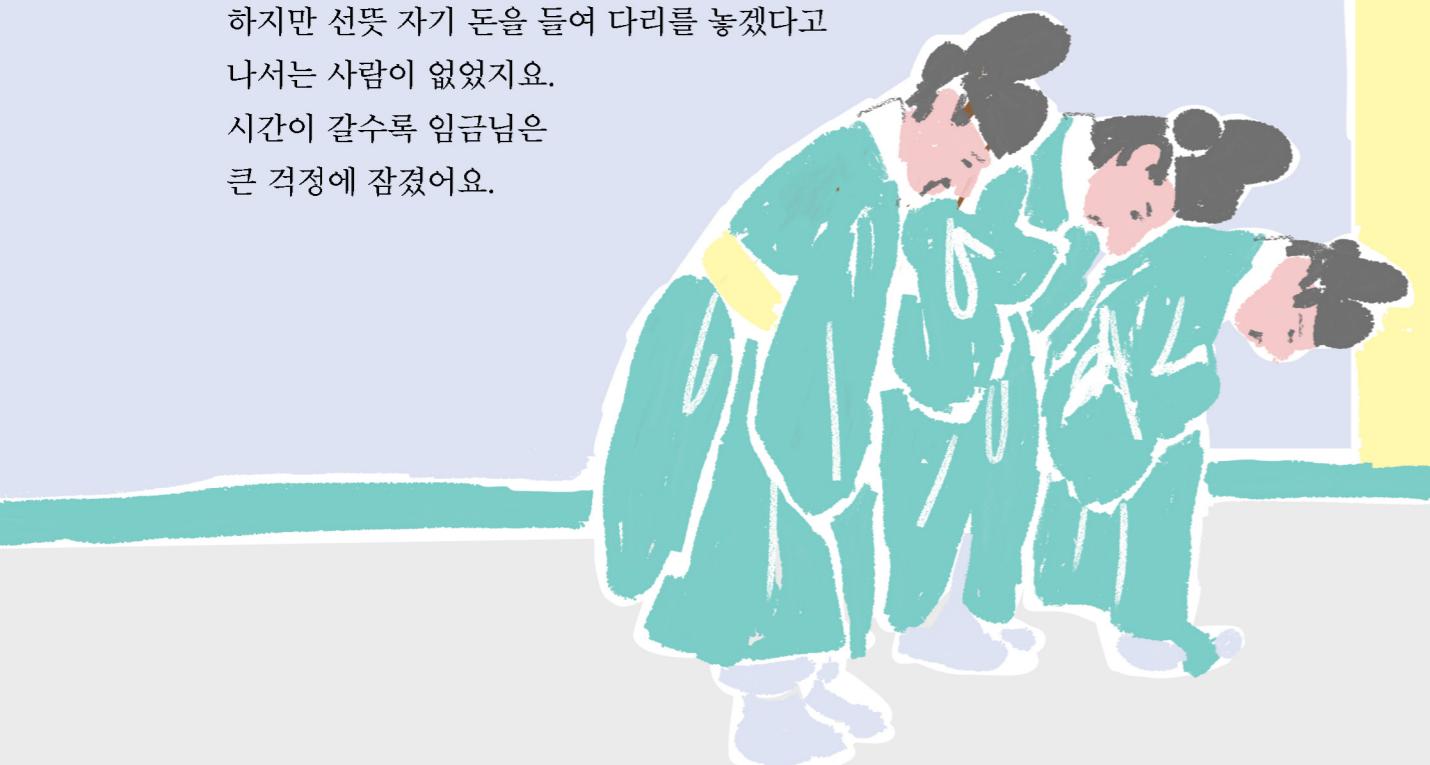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옛날 옛날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에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겨 중국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했어요.

“전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달래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라 살림이 어려워 다리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
다리를 놓아 줄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선뜻 자기 돈을 들여 다리를 놓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임금님은
큰 걱정에 잠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드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나선 분이 바로
조한준 할아버지였어요.

비록 자신은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더라도 나랏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어요.
조한준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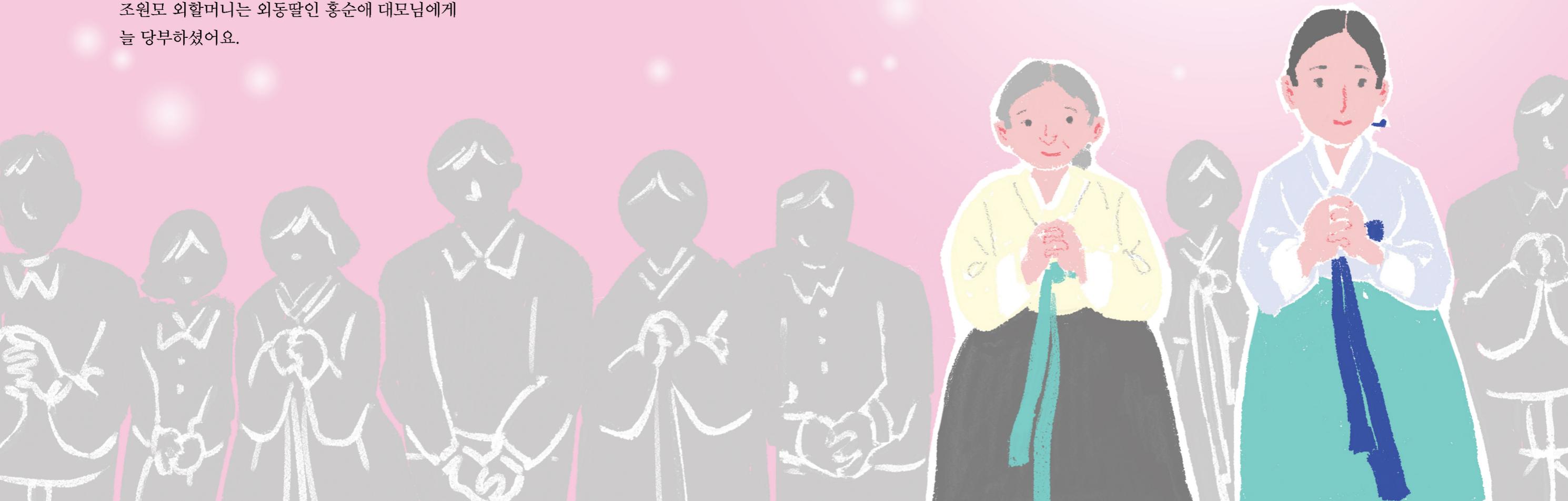
“나라를 위하고자 한
네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훗날 너희 가문 자손 중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 주겠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외동딸인 조원모 외할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조한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언제나 잊지 않으셨어요.

“순애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다.
그날을 위해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라.”

조원모 외할머니는 외동딸인 홍순애 대모님에게
늘 당부하셨어요.

홍순애 대모님은 어머니와 함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며 열심히 정성을 들이셨어요.



홍순애 대모님이 결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야! 네가 아들을 낳으면 우주의 왕이 될 것이고,

딸을 낳으면 우주의 여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딸을 홍순애 대모님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아주 울창하고 푸른 소나무 숲이 있는데,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사이좋게 어울려 노는 게 아니겠소?”

“어머! 그래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이름을 학자(鶴子)라고 지읍시다.”

홍순애 대모님은 불룩하게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43년 음력 1월 6일, 아기 울음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딸

한학자 참어머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꼭 노랫소리 같아요.”

“커서 음악가가 되려나 보지. 호호호.”

조원모 외할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랄라랄라~”

아기는 노래하듯

방글방글 잘도 웃었지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홍순애 대모님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당장 없애 버려야겠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사탄이 다가와
아기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 줄 아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홍순애 대모님은 크게 소리치며
온몸으로 사탄과 맞서 싸웠어요.



“무슨 일이냐?”

건넌방에 있던 조원모 외할머니가 시끄러운 소리에
크게 놀라서 달려왔어요.

“네가 아이를 낳고 몸이 약해진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조원모 외할머니는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고는 안타까워했어요.

“어찌하여 어렵사리 얻은 이 귀한 아이를
사탄이 노린단 말이냐?”
“어머니,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더욱더 정성을 들여 잘 키워야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지켜 주십시오!”

홍순애 대모님은 어린 참어머님을 지키려고
몇 날 며칠 잠 한숨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원모 외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아기 엄마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
“지금 제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으로부터 우리 아기를 지켜 내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순애 대모님 귓가에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 아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많았지?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딸이다.

하나님 대신 맡아 기른다고 생각하며

그 딸아이를 정성껏 길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하나뿐인 딸인
참어머님을 보내시기 위해 조원모 외할머니도 외동딸로,
홍순애 대모님도 외동딸로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홍순애 대모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의 딸로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홍순애 대모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딸
참어머님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키우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1

하늘이 준비하신 참어머닝

초판 1쇄 발행일 · 2021년 2월 1일

글 · 김순민 | 그림 · 인미
펴낸이 · 윤영호 | 펴낸 곳 · 효정문화원

편찬위원 · 정원주 윤영호
교정 및 교열 · 이길연 | 진행 · 홍성민 | 제작 · (주)HJ스마트에듀 / 더공감
감수 · 김황제 이길연 도현섭 최정은 서다희

출판사 · 모심(HJ스마트에듀) | 등록번호 · 제2020-000351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6 우정빌딩 3층 (서교동)
전화번호 · 02-326-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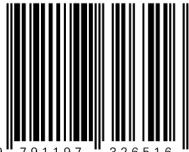
ISBN · 979-11-973265-1-6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C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값 13,000원



77200

9 7911197 3265516
ISBN 979-11-973265-1-6
ISBN 979-11-973265-9-2 (전 7권)

